

# 원석 다듬고 전력차 줄이고... 제주서 '2023 밀그림'

### KIA, 내달 24일까지 마무리 캠프...1·2군·신인 선수 24명 투수 12명 중 좌완만 5명...신에 좌완들 눈도장 찍기 치열

'호랑이 군단'이 제주도에서 한 시즌을 돌아보고 2023시즌 밀그림을 그린다.

KIA 타이거즈가 11월 1일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학야구장 일원에서 24일까지 마무리 캠프를 진행한다. 모처럼 합평·광주를 벗어나 치르는 전지 훈련이다.

KIA는 2018년 일본 오기나와 캠프를 끝으로 합평·광주 등 홈구장에서 마무리 훈련을 소화했다. 이번 마무리 캠프에는 퓨처스 선수와 2023년 신인 선수인 김세일·곽도규·이승찬·박일훈(이상 투

수)와 정해원·김도원·김재현(이상 내야수) 등 24명이 참가한다.

이번 마무리캠프는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진행되며 선수단은 체력 및 기술 훈련을 소화하게 된다.

제주 캠프 선수단은 27일부터 광주에서 워밍업을 한 뒤 31일 제주도로 이동해 본격적인 마무리 훈련을 시작한다.

훈련은 김종국 감독을 필두로 진갑용 수석코치 정명원·곽정철 투수 코치, 이병호 타격 코치, 이현

근·박기남 수비 코치, 조재영 주루코치, 김상훈 배터리 코치 등 1군 코칭스태프가 진행한다.

내년 스프링캠프에 앞서 청사진을 그리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KIA는 올 시즌 4년 만에 '가을 잔치'의 꿈은 이뤄지만 힘든 5위 싸움을 했다. 새로 가세한 나성범과 함께 '최고참' 최형우, 좌완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양현종 등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중심을 잡았지만 내부의 전력 차가 컸다.

주전과 비주전, 1군과 2군의 전력에 많은 차이가 나면서 안정적으로 팀을 꾸려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KIA는 이번 캠프를 통해 '원석'을 다듬고 전력의 격차를 줄이면서 탄탄한 팀 전력을 위해 공을 들

일 예정이다.

'좌완 경쟁'도 이번 캠프의 관심사다.

KIA는 올 시즌 양현종, 이의리와 두 외국인 선수들 4명의 좌완으로 선발진을 운영했다. 여기에 김기훈까지 가세하면서 좌완 가뭄이 해결됐다.

신에 좌완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 '눈도장' 찍기에 나선다.

제주도 캠프에 참가하는 12명의 투수 중 좌완은 김유신, 강병우, 유지성, 김세일, 곽도규 등 5명이 좌완이다. 좌완 불펜 고민은 남아 있는 만큼 이들의 경쟁은 뜨겁게 전개될 예정이다.

KIA가 신인드래프트에서 가장 먼저 호명했던 1라운드 지명 선수인 좌완 윤영철은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제주도 캠프 명단에서 제외됐다.

합평 제주 캠프에 참가하지 않는 선수들은 합평 챔피언스 필드와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서 마무리 훈련을 하게 된다. 합평조는 27일부터 체력 및 기술 훈련을 시작하고, 광주조는 31일부터 체력 훈련에 나선다.

◇제주도 마무리훈련 캠프참가 선수 명단

▲투수(12명) : 강병우, 김유신, 김찬민, 나용기, 송후섭, 유지성, 이태규, 장지수, 김세일, 곽도규, 이승찬, 박일훈 ▲포수(3명) : 김선우, 신범수, 신명승 ▲내야수(6명) : 김규성, 임석진, 홍종표, 정해원, 김도원, 김재현 ▲외야수(3명) : 김민수, 박정우, 한승연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인간 철벽' 김민재(왼쪽)가 2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나폴리의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에서 열린 유럽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A조 레인저스(스코틀랜드)전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헤더로 공격을 차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수 활약 김민재...선방에 막힌 손흥민

### 김민재, 상대 역습 차단 풀타임 활약...나폴리, UCL 조별리그 전승 손흥민, 슈팅 4회 공격 포인트 못올려...토트넘, 16강행 확정 못지어

이탈리아 프로축구 나폴리가 '괴물 수비수' 김민재를 앞세운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레인저스(스코틀랜드)를 대파하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5전 전승을 달성했다.

나폴리는 27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나폴리의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경기장에서 열린 레인저스와 2022-2023 UCL 조별리그 A조 5차전 홈경기에서 3-0으로 완승했다.

지난달 조별리그 첫 경기 리버풀(잉글랜드)전부터 시원한 4-1 승리를 거둔 나폴리는 이후 아약스(네덜란드), 레인저스와 네 차례 경기에서 16골을 쏟아내는 화력을 자랑하며 UCL 5연승을 달성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7연승을 포함하면 공식 경기 12연승이다.

앞서 지난 13일 아약스를 4-2로 잡으며 16강에 선착한 나폴리(승점 15)는 2위 리버풀(승점 12·4승 1패)과 승점 3 차이로 조 1위를 유지했다. 다

음달 2일 리버풀과 조별리그 마지막 원정 경기까지 치른다.

센터백으로 나폴리 포백 라인의 중심에 선 김민재는 풀타임을 뛰며 팀의 무실점을 이끌었다.

김민재는 전반 25분 상대 빠른 발을 이용해 상대 공격수에 따라붙은 후 끝까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상대 역습을 무산시켰다.

16분 뒤에는 단독 드리블로 골문까지 돌파한 말리크 킬만의 앞을 가로막으며 슈팅을 견어냈다. 한 박자 빠른 판단으로 상대 전진패스를 끊어 내던 김민재는 후반 15분에는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상대 중거리 슈팅도 막아냈다.

김민재는 공격에서도 제 몫을 해줬다.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김민재는 96회 패스를 시도해 성공률 99%를 기록했다.

전반 16분에는 측면의 마리오 후이에게 전진패스를 공급해 두 번째 골의 기점이 되기도 했다.

열린 공간에서 패스를 받은 후이의 크로스가 히오바니 시메오네의 머리로 정확히 향해 헤딩골

로 연결됐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는 스포르팅(포르투갈)을 홈에서 맞은 D조 5차전에서 1-1 무승부에 그쳤다.

2승 2무 1패가 된 토트넘(승점 8)은 조 선두는 지켰다. 2위 스포르팅(2승 1무 2패·승점 7·골 득실 0)과는 승점 1 차이다.

같은 조 프랑크푸르트(독일)가 마르세유(프랑스)를 2-1로 꺾고 3위(승점 7·골 득실 -2)로 올라섰고, 마르세유는 4위(2승 3패·승점 6)로 처졌다.

1~4위 간 승점 차가 2에 불과한 D조에서는 조 1, 2위까지 주어지는 16강 티켓의 주인공이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가려지게 됐다.

토트넘은 다음 달 2일 마르세유와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다.

손흥민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부지런히 선방을 누볐지만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이날 총 슈팅 4회, 유효슈팅 3회를 만들어낸 손흥민에게 후스코어드닷컴은 7.12의 평점을 매겼다. 특히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때린 강력한 원발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힌 장면이 아쉬웠다.

/연합뉴스

## "김하성, 유격수 계속해야" 미 샌디에이고 매체 평가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팀의 간판 타자이자 주전 유격수였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23)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꿨다고 미국 현지 매체가 평가했다.

미국 샌디에이고 지역 매체 '이스트 빌리지 타임스'는 27일(한국시간) '내년에는 누가 샌디에이고의 유격수가 될까' 제하 기사에서 "김하성이 수비에서 타티스 주니어를 앞선다. 수비력을 입증한 김하성을 유격수에 그대로 뒤야 한다"고 말했다.

타티스 주니어는 오토티아 사고로 인한 부상과 약물 복용에 따른 출장 정지로 이번 시즌을 통째로 비웠고 내년 4월까지 복귀할 전망이다.

그사이 출전 기회를 늘려온 김하성은 견고한 수비와 허슬플레이로 골드글러브 후보에게까지 오르는 등 주전 유격수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매체는 "올해 꾸준했던 김하성의 수비가 샌디에이고의 경쟁력에 한몫했다"며 "수비지표 DRS(Defensive Run Save-수비 지표)에서 김하성은 메이저리그 6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타티스 주니어에 대해서는 "극적이고 곡에 가까운 움직임이 보여줬지만 수비 능력은 의심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NO백신' 조코비치 호주오픈 출전하나

### 세르비아 언론 "긍정적 신호"



노바크 조코비치(7위·세르비아·사진)가 2023년 1월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출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세르비아 언론 매체 스포르탈은 27일 "2023년 호주오픈 출전과 관련해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는 조코비치의 말을 보도했다.

조코비치는 올해 1월 호주오픈 출전을 위해 호주 멜버른 공항에 도착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두 차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조코비치는 결국 다시 세르비아로 돌아가야 했다.

입국이 한 차례 불허된 경우 3년간 비자 발급이 거부되기 때문에 조코비치가 2023년 호주오픈에도 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조코비치는 세르비아 매체를 통해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있지만 아직은 비공식적인 내용"이라며 "호주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관련 당국과의 견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 주 내로 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답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오픈 남자 단식에서 통산 9차례나 우승한 조코비치는 "호주에서는 항상 좋은 결과를 내왔기 때문에 호주오픈은 꼭 출전하고 싶은 대회"라고 의욕을 내보였다.

조코비치는 올해 4대 메이저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하는 호주오픈과 US오픈에 출전하지 못했다.

조코비치는 "호주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외국 여행객들에게 국경을 개방하기로 한 점도 좋은 신호"라며 "나에 대한 비자도 발급되기를 바라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호주 정부가 좋은 답을 주기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